

# 농진청, 돼지 전염병 발생주의보 발령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27일 양돈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돼지 유행성설사병, 전염성 위장염,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콜레라 발생주의보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 — 농촌진흥청 —

### 1. 돼지 유행성 설사병

돼지 유행성 설사병은 연중 발생하나 비교적 추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모든 연령에서 발생하나 육성돈 및 비육돈에서 흔히 발병하여 피해를 주는 것이 전염성 위장염과 다르고 또한 새끼돼지에 발생시 죽는 비율이 높으며 전파속도는 전염성 위장염 보다는 낮습니다. 유행성 설사병이 금년 2월 경기 및 전북 일부 지역에서 650두 발생하여 310두가 폐사하였으므로 새로 개발된 예방약의 접종 및 돈사 내·외부 소독과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증상

- 물같은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기도 하며 큰 돼지의 경우 구토, 무기력증이 나타난다.

- 죽는 비율은 새끼돼지에서 50~90%로 높으나 큰돼지의 경우에는 발병후 1주일 정도 지나면 회복하며 죽는 비율은 1~3% 내외이다.

어미돼지는 젖의 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젓먹는 새끼돼지의 발육이 떨어진다.

#### ○ 예방대책

- 돼지 구입시 설사병 발생이 없었던 믿을 수 있는 양돈장에서만 구입한다.

- 돼지 및 사료운반 차량, 중계상인, 타양돈농가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독조치 후 출입토록 한다.

- 감염된 돼지가 배설한 똥에는 많은 양의 병원체가 들어있어 중요한 전파요인이 되므로 양돈장 내외의 철저한 소독 및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발생된 양돈장은 새끼돼지 돈방의 온도를 약 30℃ 정도 올려줌과 동시에 탈수와 복합세균 감염을 줄이기 위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여 수액제 및 항생제 등을 투여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 병이 발생한 양돈장의 경우 분만 예정일이 가까운 임신모돈을 철저히 소독한 후 분만실로 이동시키도록 하고 병원체의 전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소독 등 특별한 관리를 한다.

- 모든 양돈장에서는 임신돈에 대하여 매 분만 5~6주전에 1차 예방접종하고 다시 분만 3주전에 2차 예방접종하여 새끼돼지의 피해를 막는다.

## 2. 돼지 전염성 위장염

돼지 전염성 위장염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급성설사병으로 모든 연령에 발병하나, 특히 1주령 미만의 새끼돼지에 발생하면 대부분 죽게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돼지 전염성 위장염이 금년 2월 경기 및 경북 일부지역에서 140두 발생하여 130두가 폐사하였으므로 금후 위생관리와 백신접종을 소홀히 한 양돈장에 번질 것이 우려되니 모든 양돈농가에서는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증상

- 모든 연령의 돼지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며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

- 어린 새끼돼지는 황록색 또는 회백색의 심한 악취가 나는 물같은 설사를 하며 소화되지 않은 젓덩어리가 포함되기도 한다. 또한 가끔 구토증상을 나타내며, 설사로 인한 심한 탈수증으로 발병된지 4~5일경에 대부분 죽는다.

- 비육돈과 큰돼지는 대체로 설사후 일주일 이내에 회복되는 경향이 있으나 어미돼지는 젓의 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젓먹는 새끼돼지의 발육이 떨어진다.

### ○ 예방대책

돼지 유행성설사병 예방대책에 준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한다.

## 3.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PRRS)은 임신한 어미 돼지에게 유산, 사산, 조산 등의 번식장애와 모든 일령의 돼지에게 호흡기장애가 나타나며 양돈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는 질병입니다. 농촌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에서는 1993년초 이 질병에 대한 진단법을 확립하여 검역소와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보급하였으며, 1985년 이전에 이미 국내서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수의과학연구소에 가검물을 검사의뢰한 경기, 충북, 경남지역 양돈장의 돼지 189두중 12%가 돼지 생식기 호흡기증후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임신돈의 번식장애 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병으로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니 모든 양돈농가에서는 방역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증상

- 초기에는 식욕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 보이며, 체온이 39~40°C 정도까지 올라간다.

- 귀, 외음부, 꼬리, 복부 및 콧등이 푸르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임신말기(임신 107~113일) 유산, 사산, 미이라 태아가 발생한다.

- 젓먹는 새끼돼지는 죽는 비율이 약 20~25% 정도로 높고 8~12주간 지속된다.

- 어린 새끼돼지에서는 빠른 복식호흡이 나타난다.

- 번식장애는 대부분 감염 초기부터 6개월 정도가 경과하면 감염 이전상태로 회복되지만, 젓 떴 새끼돼지와 육성비육 단계의 돼지에서 만성적인 감염이 지속된다.

- 만성감염 단계에서는 젓 떴후 죽는 비율이 증가하고 복합적인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며, 성장과 사료효율이 저하된다.

○ 예방대책

- 건강한 돼지가 감염돼지의 접촉에 의하여 주로 발생하므로 외부에서 돼지를 구입할 경우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은 양돈장에서 구입한다.

- 새로 구입한 돼지는 30일 정도 따로 사육하면서 세밀히 관찰한다.

- 돈사의 청결유지와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차량 등의 출입시에는 반드시 소독 후 출입시킨다.

-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는 신속히 수의과학연구소나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하여 진단을 받는다.

-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방약은 없으며 미국에서 개발된 예방약의 효능 및 안전성 시험이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진행중에 있다.

- 만성감염 양돈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역대책을 강구한다.

- 감염돼지를 선별하기 위하여 각 돈사별로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 감염돼지가 있던 돈사는 고압세척 및 소독을 주 1회 실시한 후 건조시키며 3주간 비워둔다.
- 소독된 돈사에 새로 입식할 돼지는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감염되지 않은 돼지를 입식시킨다.
- 입식된 돼지들은 정기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한다.

4. 돼지콜레라

돼지 콜레라는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만성 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죽는 비율이 매우 높아 일단 발생하면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

래하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도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질병임에도 최근들어 노동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첫 젓먹기 전 예방접종을 기피하고 또한 2회 접종을 해야하나 1회 접종만 하며 심지어는 아예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도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 전북 지역에서 1,000여두가 발병하여 300여두가 폐사되는 등 산발적으로 돼지 콜레라가 발생되어 양돈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환절기를 맞아 발생이 확대될 우려가 예상되니 양돈농가에서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증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모든 돼지는 일령에 관계없이 발병하고 발병 후 7~21일 사이에 대부분 죽는다.

- 체온이 40~41℃로 오르고 발병 후 며칠내에 죽는 급성의 경우와 열이 일정치 않고 20~30일이 지나서 죽는 만성성의 경우도 있다.

- 처음에 열이 나고 사료를 거의 먹지 않으며 굶이 섞인 굳은 똥을 누다가 냄새가 심한 설사를 한다.

- 눈이 출혈되고 눈곱이 끼며 기침과 구토를 종종한다.

- 몸에는 붉은 얼룩무늬가 생기고 뒷다리를 잘 쓰지 못하며 비틀거리고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신경증상 등을 보인 후 혼수상태에 빠져 죽게된다.

○ 예방대책

- 새끼돼지를 구입할 때는 시장이나 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양돈장에서

구입한 후 2~3주간 따로 기르면서 예방접종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한다.

- 돈사내외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외부인의 돈사출입을 제한하며 부득이 양돈장을 출입할 때는 소독한 다음 출입토록 한다.

- 관리인의 돈사 출입시에는 작업복과 작업화를 착용하고 소독한 다음 출입토록 한다.

- 항상 깨끗한 물을 먹이도록 하되, 오염이 의심될 때는 음수소독제를 사용한다.(4급 암모늄, 락스제제)

- 모든 돼지에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한다.

### ○ 예방접종

- 가까운 양돈장에 발생되고 있을때(긴급할 때)

: 분만후 첫 젖을 먹기 전 새끼돼지에 접종한다.

- 가까운 양돈장에 발생이 없을때

- 1차 : 생후 5~6주령
  - 2차 : 생후 8~9주령
- 2회 접종

※ 일찍 젖을 땔때(3~4주령) 예방 접종할 경우 어미돼지로부터 받은 모체 이행 항체때문에 간섭효과를 받아 예방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 번식용 어미돼지

: 접붙이기 2~4주 전에(년 1회) 접종한다.

- 접종은 어미돼지와 새끼돼지 구분없이 모두 귀 뒷부분 피하나 뒷다리 근육내에 1ml를 놓는다.

※ 돼지콜레라는 백신접종만 제때에 정확하게 해주면 예방이 가능하므로 양돈장에서는 예방약의 보관 및 접종시기 등을 잘 지키도록 한다.

□ 질병에 관한 사항은 농진청(0331-292-4296)이나 수의과학연구소(0343-49-2151)로 문의바랍니다.

# 동·물·약·품·도·매·전·문

귀·내외  
약·품·도·매·전·문  
의·진·구·비

정직과 신용으로 달려온 외길 40년  
21세기를 고객과 함께 열어갑니다.

유동의 KNOW HOW를 가진 (주)협성가축약품이 귀사의 적정재고를 유지시켜 주며 필요한 약품과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에 최소의 비용으로 공급하여 귀하의 사업을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 동물약품도매전문 (주)협성가축약품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287-31
- 본사 : 967-8779/964-4870
- 청량리영업소 : 965-9778
- FAX : 960-1894